



# P&G 거치형 페브리즈 용기 개발

Development of P & G Placement Febreze

三村 伸雄 / P & G제팬 연구개발 본부

## I. 서론

최근 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제품의 기본 성능에 플러스 알파로서 용기의 디자인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단순한 그림만이 아닌 기능적 디자인이다. 당사가 거치형 소취 방향제로서 거치형 페브리즈를 2005년 가을에 출시하고 나서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다행히도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제품의 성능면에서 뿐만 아니라 3종류의 거치를 할 수 있는 기능면이나 외관 디자인에 관해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거치형 페브리즈의 외관 디자인은 방에 놓여 있어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을 주안점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존재감을 주장하는 종래의 일용품 디자인과는 다른 컨셉이었으며 또 소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기능면의 요망을 디자인에 반영한 경위를 패키지디자인 컨셉, 1차용기의 개발, 쥘링재 개발로 나누어 간단하게 서술해 본다.

## 1. 패키지디자인 컨셉

거치형 소취 방향제의 개발에 즈음하여 기존의 용기디자인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었다.

① 손님에게 방에 냄새가 난다고 생각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에는 방향제를 두고 싶지 않다.

② 방에 두어도 너무 커서, 방속에서 눈에 잘 띄어 인테리어와 매치되지 않는다.

③ 방 뿐만이 아니라 장롱 속 등의 좁은 장소나 비좁은 틈에도 넣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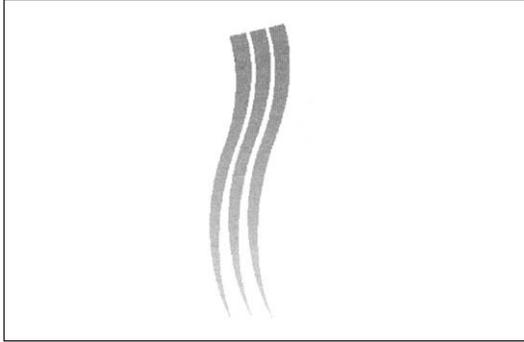
또 이 상품의 내용물은 신규개발한 규브상의 젤리이다. 기존의 상품은 액체나 입상의 젤리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필하고 싶었다.

이 소비자조사 결과 및 상품의 특징을 근거로, 용기 디자인의 컨셉으로서는 주로 아래 네 가지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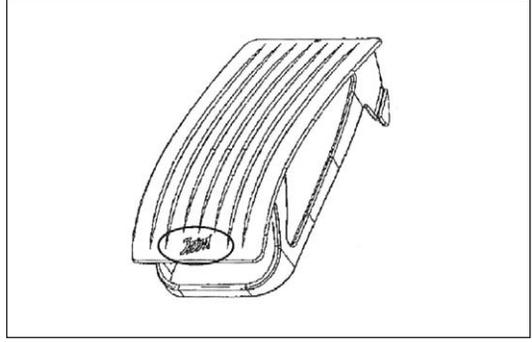
① 페브리즈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는 디자인

② 방에 놓여있어도 방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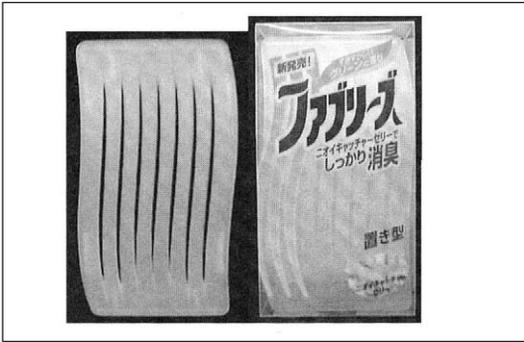
[그림 1] 산들바람 이미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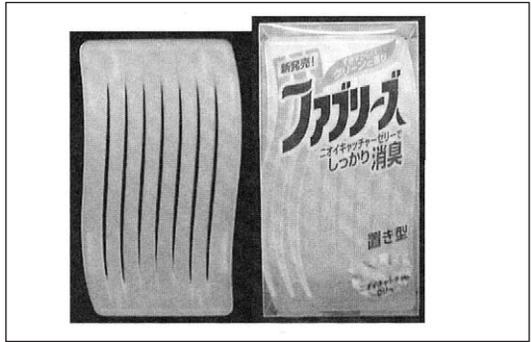
[그림 2] 커버 디자인 그림



[사진 1] 커버 및 외장상자



[사진 2] 본체사용 예



즉, 신경쓰이지 않고 동시에 멋있는 인상을 주는 디자인

③ 점두에서는 내용물의 젤리를 어필할 수가 없으며 동시에 눈에 띄는 디자인

④ 거치장소에 따라서 자유롭게 거치를 할 수 있는 소형 디자인

당사에서는 이들 디자인컨셉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는 패키지 디자인을 확정해 나갔다.

①에 관해서는 스프레이페브리즈의 이미지에서, 산들바람을 이미지 시키는 곡선을 주로 하는 디자인으로 하였다(그림 1).

이것은 용기 전체의 형상만이 아니라 커버 개

구부의 디자인 및 외장상자에도 반영되어 있다 [사진 1].

②와 ③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점으로서 실내에서 신경쓰이지 않는다=점두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외장 상자의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에 의해 해결하였다.

본체의 디자인은 실내에서 신경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기의 색은 내용물인 젤리의 형상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반투명으로 하고 제품색도 탐색색을 채용하였다. 또 페브리즈의 브랜드 로고 조차 커버하단에 작게 또 얇게 확인하였다(그림 2), [사진 2]).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으로서 일용품은 점두에



[사진 3] 본체용 외장 상자



[그림 3] 거치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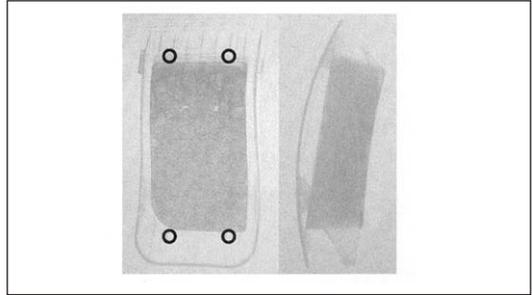
서는 눈에 잘 띄고 동시에 저렴한 상품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두에서 눈에 잘 띄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표시 면적을 최대한 취하게 위해서 점두에서 길이 방향으로 진열하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하였다.

또 신규개발한 내용물의 '냄새잡는 젤리'를 보기 위해 본체의 외장상자에는 클리어케이스를 채용하였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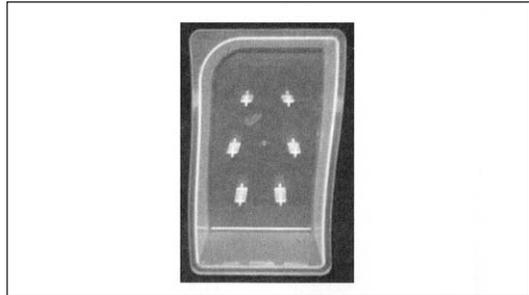
④에 관해서는 개발 당초에는 평면 거치만 상정하였지만 소비자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커버에 다리를 붙이는 것에 의해 소비자의 사용 장소에 따라 세로, 가로, 그리고 평면 거치 3종류의 거치를 할 수 있는 용기 형상으로 하였다[그림 3].

설치 면적이 최소로 하기 위한 것인지, 점두에

[사진 4] 커버 및 트레이 접합



[사진 5] 트레이 내부



서 세로 거치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인지, 실제 사용은 세로 거치가 약 70%를 차지한다(당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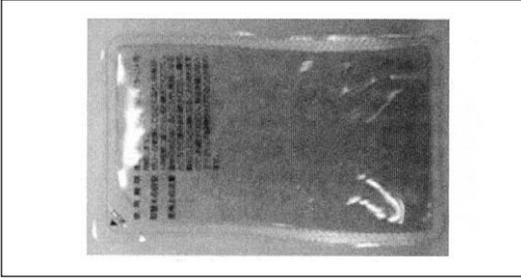
## 2. 1차용기 개발

디자인 컨셉을 토대로 용기 디자인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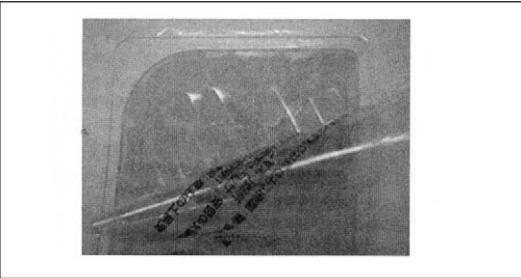
- ① 커버는 원터치로 트레이에 설치될 것
- ② 유아에게는 용이하게 열리지 않는 것
- ③ 리필 상품도 있으므로 반복 사용할 수 있을 것
- ④ 세로거치, 가로거치를 할 수 있을 것

초기 시제품에는 슬라이드식으로 커버를 트레이에 장착시키는 안도 있었지만, 커버만을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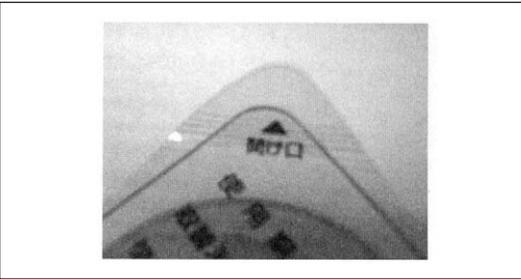
[사진 6-1] 씰링재



[사진 6-2] 박리 도중 씰링재



[사진 7] 박리 손잡이부



올렸을 때에 트레이 탈락의 우려가 있다는 것, 유아가 간단하게 트레이와 커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버 뒷면의 4개소의 후쿠로 트레이 위에 고정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이것에 의해 커버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직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는 17N 이상의 힘이 필요하며 또 커버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커버와 트레이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어려워 유

아가 손쉽게 떼어낼 수 없는 디자인으로 되었다 [사진 4].

안정된 중, 횡 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다리의 형상, 커버의 떼어내기 용기함 및 거치 각도를 검토하였다.

또 조립공정을 감소하고 사용시에 분해되는 일이 없도록 1 피크 구성으로 되는 점도 고려하였으며 이 결과 통상보다 금형 구조가 복잡해져서 검수에 시간을 요했다.

트레이 내부에는 세로, 가로 거치 상태에서 내용물이 가능한 한 치우치지 않도록 핀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젤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5].

### 3. 씰링재 개발

트레이의 씰링재 개발은 내용물을 보이게 한다고 하는 디자인상의 요구에 부가하여 특히 기능면에서의 필요사항이 많았다.

- ① 점두에서도 내용물을 보일 수 있게 할 것
- ② 사용중에 세로 거치나 가로 거치에도 내용물인 젤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유지할 것
- ③ 커버없이도 유아가 쉽게 내용물을 꺼낼 수 없도록 할 것
- ④ 코스트 절감 및 환경 대책을 위해서 씰링재와 사용시의 내용물 유지재를 일체화 할 것
- 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구부 면적을 확보할 것
- ⑥ 박리하기 용이함

이들 필요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컵라면 등에 사용되고 있는 2층으로 분리할 수 있는 리드



재 가공기술을 응용하여 투명 플라스틱 라미네이션 필름 재료를 채용하였다(사진 6-1, 6-2).

이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유지재로서 내부 리드재가 불필요해져 공정의 간소화, 포장재 사용량 절감, 또 내용물인 젤리용 외장 상자를 통해서 보다 잘 보이게 하였다.

필름 구성은 내용물과의 적합성, 쉼링 후의 박리용이함, 그리고 커버 없을 때의 사용도 예상하여 유아가 쉽게 내용물을 꺼낼 수 없도록 개구부의 형상, 유지재로서의 강도와 제품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일정한 개구면적의 확보,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소비자 테스트를 반복하여 최적화 해 나갔다.

기존 기술의 응용으로 라미네이션 필름에 하프 커팅 가공을 하는 것에 의해 개구부 및 박리 손잡이부를 만들었지만(사진 7)), 유연한 라미네이

션 필름이고, 또 박리층의 두께가 컵라면 리드재와 비교해서 상당히 얇기 때문에, 엄격한 하프 커팅 가공 정밀도가 요구되어, 가공조건 최적화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 II. 마무리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품의 기본 성능에 플러스 알파로서 기능적 디자인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상품 디자인 컨셉에 집어넣어, 그것을 기능적 디자인에 반영하면서 개발한 과정을 거치형 페브리즈를 예를 들어 간단히 서술해 보았다.

거치형 페브리즈를 개발하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관계 각사의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